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020

ANNUAL REPORT

2020년 연차보고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2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지역 전체의 공동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 78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6억 6,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Contents

메시지 | 5

사무국의 주요활동 | 9

- I. 회원단체별 NEAR 명예홍보대사 위촉 10
- II. 제1회 한국 대학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프로그램 12
- III. 제8회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14
- IV. 몽골 15개 회원단체 지사들과 신년 간담회 개최 18
- V. 일본 규슈지방 3개 현 방문, NEAR 회원가입 요청 19

유관기관 협력활동 | 21

- I. 「제1회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온라인 국제회의에 NEAR 회원단체 참가 22
- II. 러시아 사하공화국 노년포럼 「NEAR 특별세션」 23
- III.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공동주최 국제회의에 NEAR 회원단체 참가 25
- IV. 제주도 개최 「COVID19 & HUMAN 국제사진교류전」에 회원단체 출품 26
- V.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가 28
- VI. 「UN ESCAP ENEA 정책대화」 참가 29
- VII.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지방의 세계화」 콘퍼런스 주관 30

대외협력 네트워킹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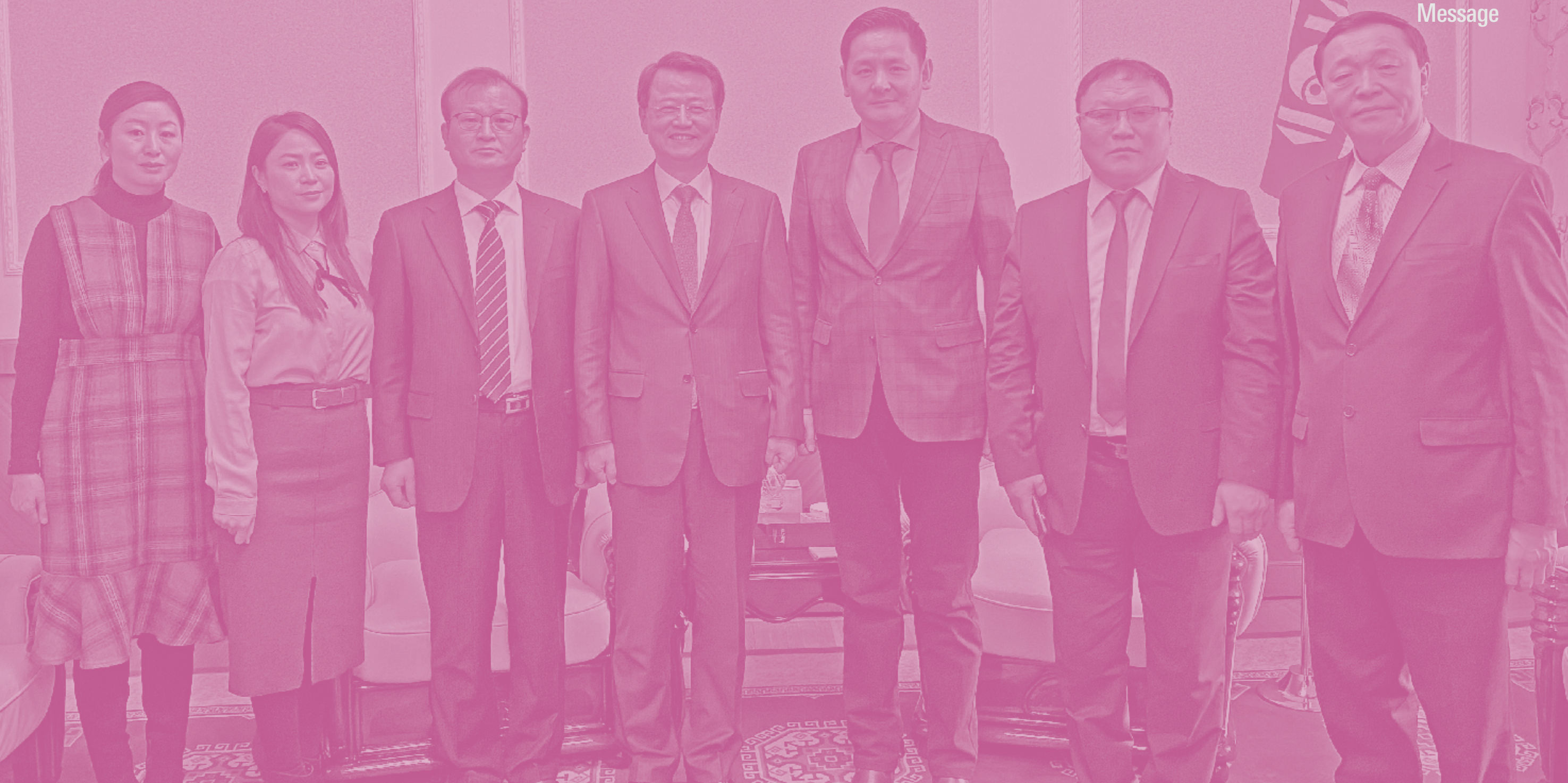
사무국 소개 | 43

부록 | 47



메시지

Message



Message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 여러분!

현재 전 세계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 같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주의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회원단체들은 NEAR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NEAR는 여러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28일, 제2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년포럼을 계기로 NEAR의 첫 화상회의인 'NEAR 특별세션'이 '포스트 COVID-19 시대의 국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동 세션은 NEAR의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과 NEAR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2021년에 사하공화국은 NEAR 의장으로서 제13차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창설된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사하공화국은 NEAR의 창립멤버이자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무역 및 인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하공화국은 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NEAR 회원지역 간에 긴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국가 간 지역 협력 강화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로 협력하여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와 지역 간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번영, 그리고 NEAR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의장 /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반 **아이센 니콜라예프**



2021년을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소속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회원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2020년 한 해 NEAR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보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은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건강의 위협은 물론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회원단체 간에도 직접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 기존 계획된 모든 국제교류 행사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3차 총회가 올해로 연기되었으며 각 회원단체가 준비하고 있던 분과위원회는 물론, 사무국이 계획했던 국제포럼, 실무자 워크숍, 청년리더스포럼 등 교류 행사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회원단체 간 직접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하공화국의 의장 임기 연장 및 제13차 총회 연기를 묻는 회원단체의 서면투표에 역대 최대인 약 90%의 참가율을 기록하여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의장인 사하공화국의 주선으로 작년 9월 처음으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는 4개국에서 32개 회원단체가 참가하여 '포스트 COVID-19 시대의 국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한국 충청남도가 주관한 '제1회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는 사무총장이 NEAR 대표로 참석하여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등과 함께 행동강령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NEAR에 신규 가입을 타진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일본 미야기縣이 작년에 NEAR 옵저버 단체로 가입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을 타진해 온 단체가 있어 올해에 국제교류 행사가 재개되면 회원단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는 작년도 응모작품이 예년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우수작품을 한국 경상북도 도청, 문화원 등에 전시하여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한 결과, 한국 방송 및 신문에도 많이 소개되어 동북아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사무국은 작년에 연기되었던 제13차 총회와 분과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등 각종 국제교류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회원단체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온라인을 통한 영상회의 개최 등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활용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회원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회원단체 여러분의 사무국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 옥 채**



사무국의 주요활동

基本精神
Main Activities of the Secretariat

互惠 - 平等
Reciprocity & Equality

信頼 - 尊重
Trust & Respect

交流 - 協力
Exchange & Cooperation

사무국의 주요활동

I. 회원단체별 NEAR 명예홍보대사 위촉

1. 추진 배경

NEAR 사무국 신규사업인 「NEAR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각 회원단체별로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를 NEAR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NEAR의 인지도 향상과 향후 동북아지역의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추진 현황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1, 2차에 걸쳐 회원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오피니언 리더 총 5개국 27개 회원단체 40명을 「NEAR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NEAR 사무국은 위촉된 NEAR 명예홍보대사들에게 위촉장과 명함을 지급하였고, 이들 명예홍보대사는 향후 2년간 지역사회 내외에서 NEAR를 홍보하고 NEAR 교류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각 회원단체별 위촉 현황 및 인원

위촉 회차	국가	회원단체	인원수	위촉기간
1차	중국	산시성	1	2020. 4. 1. ~ 2022. 3. 31.
		싼시성	3	
	일본	아키타현	1	
	한국	울산광역시	2	
	몽골	도르노드아이막	1	
		바양홍고르아이막	2	
		오르홍아이막	2	
		옵스아이막	1	
		자브항아이막	2	
		헝티아이막	2	
		홉드아이막	2	

위촉 회차	국가	회원단체	인원수	위촉기간
1차	몽골	홉스골아이막	1	2020. 4. 1. ~ 2022. 3. 31.
	러시아	알타이변경주	1	
		이르쿠츠크주	1	
		사하공화국	2	
		마가단주	1	
2차	중국	부랴티야공화국	1	2020. 8. 1. ~ 2022. 7. 31.
		닝샤후이족자치구	2	
		산둥성	2	
	일본	후난성	1	
		아오모리현	1	
	몽골	도르노고비아이막	1	
		고비알타이아이막	2	
		불강아이막	1	
		셀렝그아이막	2	
	러시아	하카시아공화국	1	
		연해변경주	1	
총계	5개국	27개	40명	



3. 향후계획

앞으로 「NEAR 명예홍보대사」를 NEAR 사무국으로 초청하여 홍보대사의 역할, 개별 홍보활동 경험 공유, 홍보화방안 토의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I. 제1회 한국 대학생 대상 사무국 체험·연수 프로그램

1. 행사개요

제1, 2회 지역 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은 각각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NEAR 사무국에서 진행되었다. NEAR 사무국 체험·연수 과정은 사무국이 2020년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국제기구를 접할 기회가 제한된 한국 경북 도내 학생들이 사무국을 체험하고, 전문위원들과 만나 소통하고 배움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국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토의 및 발표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주재관 강의, 사무총장 특강, 토의 및 발표, 일지 작성 등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전문위원들의 깊이 있는 나라별 강의는 학생들에게 각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했다. 연수 과정을 창설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이 사무국의 업무 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위원들과 토의, 과업 수행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정치·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역내 협력과 공동번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주요내용

이번 과정에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총 20명(회당 10명)이 참가하였고, 국제학, 정치외교학, 어문학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공학, 교육, 자연과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했다. 사무국의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전문위원과 주재관은 각자의 업무를 소개하고, 문화, 경제 등을 포함한 국가별 개괄을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 홍보 전문위원은 실무 위주의 강의를 제공하고 관련 과업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강의에서 전문위원의 지도에 따라 자유롭게 건설적으로 토의하고, 모의 사업 구상 및 발표 등의 구체적인 과업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국제기구 업무의 전문성을 익혔다. 하루 단위로 연수일지를 작성하여 배운 것을 정리하고,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NEAR를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3. 결과

국제기구를 방문하여 체험할 기회가 제한된 지방 학생들에게 이번 연수는 그 자체로 그들에게 큰 기회이자 경험이었다. 학생들은 양질의 강의를 통해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NEAR의 교류, 협력 활동 등에 대해 배우면서 지방 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실무진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고 배우면서 국제협력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Ⅲ. 제8회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NEAR 사무국에서는 그림 등 예술작품을 통한 동북아 청년들의 문화교류를 위해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동북아시아의 문화’, ‘동북아시아의 미래’라는 선택 주제로 중국 105점, 일본 22점, 한국 18점, 몽골 46점, 러시아 132점 등 총 323점을 접수하였다.

심사 결과 중국 후난성 룡산현(龙山县) 황창(皇仓)고등학교 차오즈의 “제마(梯瑪)의 기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중국 후난성, 한국 충청북도, 몽골 행티아이막, 러시아 톰스크주에서 각각 차지하였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은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회원단체 청소년의 더욱 활발한 참여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사무국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입선작을 추가 선정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상의 기회를 주었다.

수상작은 NEAR 홈페이지에 소개되었으며, 앞으로의 수상작품은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역민들이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느끼고 알 수 있는 기획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수 - 중국 후난성 룡산현(龙山县) 황창(皇仓)고등학교 차오즈
제목 : 제마(梯瑪)의 기품



우수 - 중국 후난성 이스예술실험학교 허위통
제목 : 중국 피영극



우수 - 한국 충청북도 음성글로벌선진학교 조형준
제목 : Light of Cheonggayecheon



우수 - 몽골 헝타이아막 울지체첵에르덴바트
제목 : 남성의 3가지 스포츠놀이



우수 - 러시아 톰스크주 제2아동예술학교 트카첸코 소피아
제목 : 톰스크의 거울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전시(2020. 7. 20. ~ 30.)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 경제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은 2016년(제4회)부터 신설, 개최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올해는 그간 개최한 공모전 수상작품들을 3회에 걸쳐 전시하였다. 2020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경상북도 포항시)에서 2016년부터 4년간의 입상작 등 출품작 61점을 전시하였고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경상북도청 안민관에 전시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지역민들에게 동북아시아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포항 호텔아트페어 측의 요청에 의해 수상작품을 전문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라디오방송에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소개되는 등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람할 수 있었다.



▲ 경상북도청 안민관 전시(2020. 7. 31. ~ 8. 31.)



▲ 포항 호텔아트페어 초청 전시(2020. 10. 28. ~ 30.)

IV. 몽골 15개 회원단체 지사들과 신년 간담회 개최

1. 행사개요

김옥채 사무총장 등 NEAR 사무국 일행 5명은 1월 1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市를 방문하여 아르항가이 州, 바양홍고르 州 등 15개 회원단체장과 신년 간담회(1. 3.)를 개최하고 내각사무처 및 울란바토르市도 방문(1. 3.)하였다.

2. 내용

이번 신년 간담회에서 몽골 회원단체장들은 사무국에 대해 △한국 및 일본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교류 주선 △총회, 실무위원회에 회원단체의 고위간부 참가 독려 △회원단체에 실익이 될 수 있는 경제교류에 주력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 총장은 몽골 회원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연합 사무국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분야부터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올해 9월경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될 연합 총회 등 각종 NEAR 국제교류 행사에 몽골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하였다.



V. 일본 규슈지방 3개 현 방문, NEAR 회원가입 요청

1. 행사개요

김옥채 사무총장 등 NEAR 사무국 대표단(4명)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나가사키(長崎) 등 일본 규슈 남쪽 지역 3개 縣을 방문하여 NEAR의 창립 취지 및 활동내용을 설명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2. 내용

오이타현에서는 나카시마 에이지(中島 英司) 기획진흥부장이, 미야자키현에서는 사코 시게히사(酒匂 重久) 관광경제교류국장이, 나가사키현에서는 우라 마사키(浦 眞樹) 문화관광국제부 정책감(政策監)이 각각 NEAR 대표단을 맞이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회원가입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3. 참고사항

한편, 2019년 11월 NEAR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는 일본 미야기현은 2020년 4월 사무국 앞 공문을 통해 NEAR 옵저버 단체로 가입을 희망하였다.



세계의 평화, 번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Cooperation Activities with Related Organizations

2020. 12. 9.(Wed.) - 11.(Fri.)



유관기관 협력활동

I. 「제1회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온라인 국제회의에 NEAR 회원단체 참가

1. 행사개요

작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 7.)’ 지정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NEAR 회원단체인 한국 충청남도과 한국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온·오프라인)이 9월 7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NEAR 사무국이 회원단체에 참가를 타진하여 희망단체에서 신청, 참가하였다.



2. 주요내용

이번 포럼은 충청남도의 주도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의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NEAR 회원으로서는 한국(14개 단체) 이외도 중국(안후이성, 쓰촨성), 일본(효고현), 몽골(우브르항가이아이막), 러시아(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등 4개국에서 8개 단체가 화상회의에 참가하였다.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와 기후변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동 포럼은, 반기문(潘基文) 한국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강경화(康京和) 외교부 장관의 환영사,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양승조(梁承晁) 충남 지사, 리간제(李干杰) 중국 산둥성 성장, 아라이 쇼고(荒井正吾) 일본 나라현 지사의 연설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은 반기문 위원장, 양승조 충남 지사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선언문 실천강령을 낭독하는 세레머니에 참석하였다.



II. 러시아 사하공화국 노던포럼 「NEAR 특별세션」

1. 행사개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제안에 따라 NEAR 첫 온라인 화상회의인 사하공화국 노던포럼 「NEAR 특별세션」이 9월 28일 개최되었다. 이번 「NEAR 특별세션」은 ‘포스트 COVID-19 시대의 국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중국(5), 한국(7), 몽골(8), 러시아(12) 4개국 32개 회원단체 111명이 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환영사 /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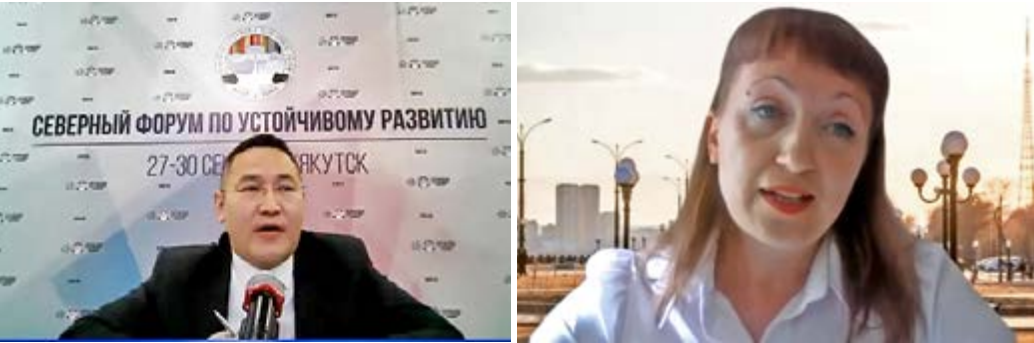
가브리엘 키릴린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외관계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화상회의는 세르게이 메스트니코프 사하 공화국 부총리의 환영사,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축사, 한국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의 영상메시지, 에스테반 레온 UN-HABITAT(유엔인간주거계획) 과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회원단체 대표 발표〉



4개국 회원단체 대표 6명이 COVID-19 상황에서 각 회원단체가 추진해 온 보건, 교육, 기업지원, 도시 개발 등에 대한 정책 수행 경험을 발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① 세르게이 메스트니코프 러시아 사하공화국 부총리가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의 교육분야’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원격 디지털 교육을 위한 지역의 교육모델을 제시하였고, ② 칠하 어요나 몽골 도르노다йма크 보건국장은 ‘도르노다йма크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③ 스빙인 중국 쑤시성 시안교통대학 제1부속 병원장은 당 병원의 해외 의료인력 파견 및 의료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해 각국이 협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④ 이용일 한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는 세종시의 포스트코로나시대 4차 산업 혁명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조성 등의 추진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⑤ 예카테리나 키레예바 러시아 아무르주 경제개발부 제1차관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와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시와의 국제협력 지속 사례를 소개하였고, 마지막으로 ⑥ 한재성 한국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과장은 경상북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3. 평가와 과제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NEAR 회원단체 간 코로나와 같은 교류협력에 새로운 도전 요소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간 경험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2021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되는 NEAR 총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를 약속하며 「NEAR 특별세션」을 종료하였다.

Ⅲ.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공동주최 국제회의에 NEAR 회원단체 참가

1. 행사개요

한국 서울시에 소재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8월 5일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일 스마트시티 웨비나(Webina on CJK Smart Cities)에 WeGO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NEAR 사무국이 회원단체에 참가를 타진하여 희망단체에서 신청, 참가하였다.

2. 주요내용

본 온라인 국제회의의 목적은 한중일 스마트시티 협력에 관심이 있는 도시 및 기업을 대상으로 도시, 기업 간 상생하는 스마트시티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공유 및 스마트시티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함이다. 본 국제회의에는 총 7개 회원단체 72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충청남도(1명), 전라남도(5명), 제주도(6명)이며, 중국에서는 쑤시성(40명), 산시성(1명), 산둥성(8명), 닝샤후이족자치구(11명)이다.

향후 사무국은 회원단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제(지방협력)기구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3. 참고사항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2010년에 한국 서울특별시의 주도 하에 50개의 창립 회원 도시들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208개 회원단체이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세계도시 간 국제기구이다.

Ⅳ. 제주도 개최 「COVID19 & HUMAN 국제사진 교류전」에 회원단체 출품

1. 행사개요

NEAR 회원단체인 한국 제주도는 매년 시행하는 국제공연과 전시로 이루어지는 국제문화 교류 축제를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위주 문화교류로 전환,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COVID19 & HUMAN’을 주제로 온라인 전시만으로 국제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 영상사진전: <https://youtu.be/ZgvecYKnBSI>



2. 주요내용

이번 행사에, NEAR 회원단체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등 4개국 9개 단체에서 34점을 출품하였으며, 특히 준회원 단체인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19점을 출품,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V.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가

1. 행사개요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 팬데믹과 인본 안보'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저명한 세계 지도자들이 본 포럼에 참석하여 깊이 있는 견해를 공유하였다.

2. 주요내용

〈개회식〉

11월 6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現 UN 사무총장, 빌 클린턴 前 美대통령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하여, 팬데믹의 시대에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외교관라운드테이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다자협력〉

외교관라운드테이블은 김숙 前 주UN 대한민국대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졌고, 발표와 토론에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스웨덴대사, 일본대사, 중국대사, 독일대사 등 총 5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여하여 동북아 정세와 다자협력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3. 평가와 과제

이번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팬데믹 시대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해결책으로 다자협력을 제시했다. 또한,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여 참신하고 유익한 견해를 나누는 장이었다.

VI. 「UN ESCAP ENEA 정책대화」 참가

1. 행사개요

UN ESCAP 동북아 사무소의 정책 대화는 동북아 사무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2일에 온라인상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 대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포용적인 지역 단위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 주요내용

〈개회식〉

간볼드 바상자브 UN ESCAP 동북아 사무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정책 대화의 개회식에는 아르미다 알리사바나 UN ESCAP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축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인사가 있었다.

〈발표 및 토론〉

패널 토론은 총 두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은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지역 단위 협력의 우선순위', 세션 2는 '기관의 지역 단위 협력 프로그램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에너지, 교통, 환경, 기후 분야의 전문가들은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끌어냈다.



3. 평가와 과제

본 정책 대화는 다양한 영역의 지역 단위 전문가들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연결성’, ‘환경 지속가능성’,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지역 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였다. 동북아 지역이 에너지, 기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용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의 일관된 목소리가 있었다.

VII.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지방의 세계화」 콘퍼런스 주관

1. 행사개요

NEAR 사무국은 12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되는 콘퍼런스의 한 세션(“지방의 세계화”)을 경상북도와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온·오프라인으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수 인원이 인터넷[유튜브, 「2020 글로벌 코리아」 홈페이지]을 통해 시청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간의 교류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 주요내용

가. 개회

콘퍼런스는 김옥채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경북도 한재성 외교통상과장 대독)로 진행되었다.

나.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 및 응답

주제발표는 ① 김형수 단국대 교수(한국동북아학회 회장)가 “동북아 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② 이승근 계명대 교수(전 한국유럽학회 회장)가 “유럽 지자체 간 교류실태를 통해서 본 동북아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 구분우 전 브라질 대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한재성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장 등 4명이 참가하였다. 주제발표 후 김옥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 “NEAR는 동북아의 UN과 같은 성격의 국제기구이므로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AER(유럽지방정부연합회)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COVID-19」로 인해 각종 국제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NEAR 사무국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대외협력 네트워킹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ing



일본 시마네(島根)縣 대표단, 1월 14일 업무협약차 NEAR 사무국 방문

일본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이마오카 야스하루(今岡 泰治)」, 차장 및 문화국제과 「나기라 히토미(柳樂 ひとみ)」 과장 등 대표단(3명)은 1월 14일 연합 사무국을 방문하여 김옥채 사무총장을 만나 시마네현과 NEAR 사무국 간의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마오카」 차장은 오는 4월부터 연합 사무국에 파견 근무 예정이던 시마네현 공무원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시마네현청에서 근무하면서 NEAR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로 인한 연합 사무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김옥채 사무총장도 이를 수락하였다.



NEAR 사무국 1월 15일, 신임 행정 전문위원 김수현 씨 임명

NEAR 사무국은 신임 행정 전문위원으로 김수현 씨가 임용되어 1월 15일 김옥채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사무국 근무를 시작했다.

김수현 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 후 다년간 사기업에서 총무, 비서 등의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NEAR 사무국 기획홍보부에 소속되어 행정 전문위원으로서 회계, 서무, 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수현 행정 전문위원은 업무에 빨리 적응하여, NEAR사무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파견 공무원 신규 부임

임기만료에 따라 경상북도로 복귀한 김영희 기획홍보부장과 이원영 기획총무팀장의 후임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정필란 씨와 최해웅 씨가 1월 23일부로 NEAR 사무국에 파견되어 각각 기획홍보부장, 기획총무팀장의 보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1월 28일 NEAR 청소년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 전달식 개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는 1월 28일, '수리코프 아동예술학교'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내 173여 명의 미래 화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 중 국내외 각종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고, 특히 'NEAR 제7차 청소년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NEAR사무총장 명의로 된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였다.

한편,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동공모전에 총 44개 작품이 응모하여 9명이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을 수상한 바 있다.



NEAR 사무국, 2월 6일 MIU와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방향 협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2월 6일 사무국을 방문한 몽골국제대학교(MIU) 김수용 대외협력처장을 면담하여 오는 8월 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 대학과 「2020년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EAR 사무국은 그동안 NEAR 국제교류 행사 유치기회가 매우 적었던 몽골 회원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올해 청년리더스포럼을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MIU측이 학교 시설 및 교류프로그램 제공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행사에는 몽골 초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인 만큼 회원단체 소속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기대된다.



NEAR 사무국,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회원단체 간 상호 협력 및 격려 중재

NEAR 사무국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회원단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활동을 통해 회원단체들 간 소속감 고취와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무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중국 11개 회원단체장들에게 사무총장의 위로서한문을 발송하여 10개 중국 회원단체로부터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답신을 접수하였다.

이 외에도 회원단체 간 어려움 극복을 위한 격려 서한문과 구호품, 방역 활동 경험 공유 등 회원단체들이 협력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NEAR 사무국 파견 몽골 주재관 아쯔자야 씨, 4월 3일부 이임

몽골 울스고비아이막에서 2018년 4월 NEAR 사무국에 파견되었던 아쯔자야 씨가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4월 3일부로 이임하였다.

아쯔자야 씨는 지난 2년간 몽골 회원단체와의 교류 및 연락지원, 연합 사무국에서 작성되는 몽골어 문서에 대한 번역 감수 및 통역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연합 사무국의 업무에 공헌하였다.



일본 미야기(宮城)縣, NEAR 읍저버단체 참가 희망

일본 미야기(宮城)縣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지사는 4월 8일 당 연합 김옥채 사무총장 앞 공문을 통해, 미야기현이 NEAR의 읍저버단체로 참가하기를 희망해 왔다. 이는 작년 11월 1일 김옥채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이 미야기현을 방문하여 NEAR의 역할과 국제교류 활동 전반을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 사무국은 미야기현의 참가를 환영하고 앞으로 개최되는 NEAR의 각종 국제교류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미야기현의 읍저버단체 신청으로 일본의 경우 11개 회원단체 및 2개 읍저버단체(아마구치현, 미야기현)가 NEAR의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NEAR 김옥채 사무총장, 5월 11일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교수 등 대상 특강 실시

김옥채 사무총장은 5월 11일,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2차 한동해 포럼에 참가하여 김준엽 원장 등 담당 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고대 한일 교류역사'에 대해 90분간 특강을 실시하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총장은 동 특강에서 서기 7세기 말까지 한반도 남부와 일본 야마토 조정이 사실상 정치,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史料 등을 제시하면서 양국 국민이 근, 현대사의 기억에만 매몰되지 말고 고대 先人의 교류 정신을 되새길 때 진정한 역사화해를 이루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NEAR 사무국, 5월 20일 大邱·慶北 상생위원회 사무국과 업무협력 방안 협의

김옥채 사무총장은 5월 20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하영숙 사무국장 일행을 접견하여 NEAR 사무국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NEAR의 한국 회원단체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설치한 상생(相生)위원회와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 상생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NEAR 사무국의 동북아 6개국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 우리 사무국은 사안별로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NEAR 사무국 전문위원, 한국 내 「북극학회」 학술연구지 논문 게재

NEAR 사무국 최주화 국제협력부 팀장과 손미경 전문위원은 한국 배재대학교 「북극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북극연구'(2020년 여름호)에 북극관련 학술논문 2편을 게재했다.

최주화 팀장은 '지속 가능한 사하공화국 북극 원주민의 미래'라는 주제로 사하공화국 북극권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원주민들의 문화 계승을 통한 해당 지역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손미경 전문위원은 '일본의 북극정책 추진체계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북극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략을 진단하였다.

NEAR 사무국은 앞으로도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지에 NEAR 회원단체의 활동과 연계한 논문발표 및 기고활동을 장려해 나갈 예정이다.



NEAR 사무국 7월 1일, 홍보대사에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위촉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7월 1일, 김경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를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경호 홍보대사는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다년간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한 지역전문가로 현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자문대사,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고문 등을 맡고 있다.

김 총장은, 김 대사의 경료와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북아연합 사무국에 대한 국제정세 자문 및 러시아 지역 담당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AR사무국, 7월 3일 지역 청소년 대상 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NEAR사무국 파견 외국공무원들은 7월 3일 포항 이동고등학교의 초청으로 동교 학생들을 상대로 외국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이들과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파견된 마수차오 주재관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이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최근 중국 학생들의 트렌드를 설명하였고, 러시아 사하공화국 출신 콘스탄티노바 아나스타시야 주재관은 한겨울 영하 55℃까지 내려가는 아쿠티아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톨스토이, 푸시킨 등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문호 등을 소개하였다.



한국 경상북도 신임 외교통상과장, 7월 6일 NEAR 사무국 방문

신임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장 한재성(韓在誠) 씨가 7월 6일 당 연합 사무국을 방문하여 김옥채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사무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NEAR의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재성 과장은 1982년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미국 뉴욕 및 LA 통상투자주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국제파로, 앞으로 당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NEAR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 7월 7일 한국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특강 실시

김옥채 사무총장은 7월 7일 한국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중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문화이해 과정'의 강사로 초빙되어 '국제예절과 생활 에티켓'을 주제로 2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하였다.

김 총장은 강의를 통해 국가 및 외교 의전, 국제회의 및 생활 에티켓, 식탁 예절 등을 구체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앞으로 임무 수행 과정이나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제13차 NEAR 총회, 2021년으로 연기 확정

올해 10월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제13차 NEAR 총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의장 임기를 포함한 제13차 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희망하였고, 사무국이 연합헌장에 따라 서면으로 회원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78개 회원단체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66개 단체가 찬성하여 제13차 총회 연기 및 의장 임기연장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NEAR 사무국은 2021년 총회 일정이 확정될 경우 3개월 전에 전 회원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NEAR 사무국 8월 3일, 신임 영어 전문위원 석지영 씨 임명

NEAR 사무국 신임 영어 전문위원으로 석지영 씨가 임용되어 8월 3일 김옥채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사무국 근무를 시작했다.

석지영 씨는 대학원에서 영어통·번역 석사 과정을 졸업 후 대기업에서 통·번역 업무 경력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NEAR 사무국 기획홍보부에 소속되어 영어 전문위원으로서 타 국제기구 및 준회원과의 협력사업 추진 및 영어권 통·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NEAR 사무국 파견 러시아 주재관 아나스타시아 씨, 8월 12일부 이임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2018년 8월 NEAR 사무국에 파견되었던 콘스탄티노바 아나스타시아 씨가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8월 12일부로 이임하였다.

아나스타시아 씨는 지난 2년간 러시아 회원단체와의 교류 및 연락지원, 연합 사무국에서 작성되는 러시아어 문서에 대한 번역 감수 및 통역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연합 사무국의 업무에 공헌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아나스타시아 씨에게 NEAR사무국 재직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아나스타시아 씨는 사무국 파견근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업무를 익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9월 24일 NEAR 사무국 방문

신임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구현모 씨가 9월 24일 부임 인사차 NEAR 사무국을 방문하여 김옥채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사무국 간부들과 함께 NEAR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제교류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현모 국제관계대사는 1991년 한국 외교관으로 임용된 이래 주리비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휴스턴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바레인한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였으며, 앞으로 NEAR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 경상북도 신임 하대성 경제 부지사, 10월 15일 NEAR 사무국 방문

신임 하대성(河大成)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가 10월 15일 NEAR 사무국을 방문하여 김옥채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NEAR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하대성 부지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토부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8월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로 부임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2028년경으로 예정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완성되면 NEAR 사무국과 동북아 6개국 회원단체와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져 NEAR의 국제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사무국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감사를 표명했다.



NEAR 사무국, 10월 16일 신임 중국 전문위원 조선희 씨 임명

NEAR 사무국 신임 중국 전문위원에 10월 16일 조선희(趙仙華) 씨가 임용되어 김옥채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사무국 근무를 시작했다.

조선희 전문위원은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약 6년간 국제교류 업무 경력을 쌓았으며 최근까지 한국 내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왔다. 앞으로 NEAR 사무국 국제협력부에 소속되어 중국 회원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지역연구 및 중국어 통·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조 전문위원은, 하루 빨리 업무에 적응하여 NEAR 사무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EAR 사무국-경상북도포항의료원 MOU 체결

NEAR 사무국은 10월 21일 한국 경상북도포항의료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김옥채 사무총장과 포항의료원 함인석 원장은 이날 한국 포항시에 소재한 포항 의료원에서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직원의 건강증진 및 NEAR 보건 분야 교류협력 등 관심 분야에 교류한다는 요지의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은 의료관련 법률과 경상북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최근 최신 건강 검진용 의료기기를 다수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새마을세계화재단 장동희 대표이사, 10월 22일 NEAR 사무국 방문

한국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장동희(張東熙) 대표이사 일행이 10월 22일 NEAR 사무국을 방문, 김옥채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동재단과 사무국 간의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 대표이사는 오늘날 한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새마을사업 정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김 총장은 NEAR의 역할과 네트워크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NEAR 사무국, 10월 30일 한국 포항시 주관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참석

김옥채 사무총장 등 NEAR 사무국 일행은 10월 30일 한국 경상북도 포항시에 개최된 「2020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제6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의를 청취하였다.

포항시가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NEAR 사무국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정책과 포항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국 前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씨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국 지린성 훈춘시장, 일본 교토府 마이즈루시장,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장, 한국 포항시장 등이 'COVID-19 이후 동북아 지방정부의 대응과 협력'을 주제로 각 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향후 추진할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활동해지역 경제의 변화와 포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북아지역 발전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임 러시아 주재관 슬레프초바 이리나 씨, 11월 2일 NEAR 사무국 부임

NEAR 사무국 신임 러시아 주재관으로 사하공화국 대외관계 및 민족업무부 수석 전문위원 슬레프초바 이리나 씨가 부임하여 11월 2일 김옥채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사무국 근무를 시작했다.

슬레프초바 이리나 씨는 사하공화국 북동연방대학교 중국어문학과를 전공하고 중국 헤이룽장성 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사하공화국 공무원으로 5년간 대외업무와 국제행사를 담당하였다.

앞으로 NEAR 사무국 국제협력부에 소속되어 러시아 회원단체들과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슬레프초바 이리나 주재관은 NEAR 사무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몽골 주재관 바트사이항 몽흐체첵 씨, 11월 4일 NEAR 사무국 부임

NEAR 사무국 신임 몽골 주재관으로 다르항오울주 노동복지서비스국 소속 공무원 바트사이항 몽흐체첵 씨가 부임하여 11월 4일 김옥채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사무국 근무를 시작했다.

몽흐체첵 씨는 몽골 인문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을 전공하고, 한국 충북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다르항오울주의 공무원으로 8년간 복지 및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앞으로 NEAR 사무국 국제협력부에 소속되어 몽골 회원단체들과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몽흐체첵 주재관은 한국에서 3년간 유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 NEAR 사무국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채 사무총장, 11월 5일 주부산 일본 총영사 초청 판저 오찬 참석

김옥채 사무총장 등 NEAR 사무국 일행은 마루야마 코헤이(丸山 浩平) 총영사의 초청으로 11월 5일 부산시 수영구 소재 총영사 관저에서 실시된 오찬에 참석하였다.

金 총장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출범 당시 효과, 시마네縣 등 일본 회원단체의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마루야마 총영사는 자신의 출신지가 NEAR 회원단체인 돗토리縣임을 밝힌 후 한일 양국 정부 간 외교 현안 대립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류와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지자체 및 비즈니스·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NEAR 사무국, 11월 18일 한국 회원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 회원단체인 대구광역시 최정숙 국제협력팀장과 경상북도 담당관 등 5명이 11월 18일 NEAR 사무국을 방문하여 김옥채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사무국 전문위원들과 NEAR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단체들의 효과적인 NEAR 플랫폼 활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구광역시도 NEAR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대구광역시 최 팀장은 市가 올해 초 발생한 최악의 「COVID-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회원단체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점차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한 NEAR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EAR 사무국, 11월 20일 지방정부 공공외교 심포지엄 참석

김옥채 사무총장 등 NEAR 사무국 일행은 11월 20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인식확대를 위해 한국 경상북도와 계명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2020 경북지역 공공외교 심포지엄」에 패널과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前 주예멘 한국대사) 씨 등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 NEAR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를 담당하는 NEAR의 존재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김옥채 총장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중앙정부의 정치, 외교적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풀뿌리 교류'인 만큼, 각 자치단체 수장들이 '풀뿌리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간 관계가 어려울수록 지방정부 간 교류에 힘을 쏟는 것이 공공외교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



NEAR 사무국 파견 중국 주재관 마수차오 씨, 11월 27일부 이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2019년 12월 NEAR 사무국에 파견되었던 마수차오 씨가 11개월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11월 27일부로 이임하였다.

마수차오 씨는 지난 11개월간 중국 회원단체와의 교류 및 연락지원, 연합 사무국에서 작성되는 중국어 문서에 대한 번역 감수 및 통역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연합 사무국의 업무에 공헌하였다.



한국 대구광역시, NEAR 회원단체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사례 공유 희망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이를 단기간에 극복한 사례를 종합하여 NEAR 회원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사무국에 보내왔다.

대구광역시는 2월 18일 코로나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후 하루 확진자 수가 714명대에 이르는 등 대규모 유행으로 번졌으나, 한국 최초로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市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로 인해 첫 확진자 발생 53일 만에 확진자 수가 0명이 되는 등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세계 언론에 소개되었다.



신임 중국 주재관 청안니 씨, 12월 28일 NEAR 사무국 부임

NEAR 사무국 신임 중국 주재관으로 중국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소속 공무원 청안니(程安妮) 씨가 부임하여 12월 28일 김옥채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사무국 근무를 시작했다.

청안니 주재관은 중국 헤이룽장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한국 동국대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 연수를 한 바 있으며, 이후 헤이룽장성의 공무원으로 1년간 동북아지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앞으로 NEAR 사무국 국제협력부에 소속되어 중국 회원단체들과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청안니 주재관은 NEAR의 업무 시스템과 각종 국제 행사 경험을 빠른 시간 안에 숙지하여 NEAR 사무국과 중국 회원단체 간의 관계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Welcome to NEAR



東北亞自治團體聯合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www.neargov.org



사무국 소개

基本精神
The Secretariat

- 互惠 - 互惠
Mutual Benefit & Reciprocity
- 信頼 - 尊重
Trust & Respect
- 交流 - 協力
Exchange & Cooperation
- 平和 - 繁榮
Peace & Prosperity



DPFK



INFORMATION

1. 사무국 설치

2004년 중국 하이룽장성 제5차 총회에서 4년 임기제의 상설사무국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사무국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설사무국 유치를 제안하여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운영이 의결되었다. 이후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는 임기제 상설사무국에서 진일보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2. 사무국 조직 및 인력

사무총장 및 2부 체제(기획홍보부, 국제협력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회원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위원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3. 예산

운영비는 연간 한화 15억원(136만 달러 / 881만 위엔 / 1.41억 엔 상당) 내외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상북도(70%)와 포항시(30%)가 부담하고 있다.

4. 업무

- 가. 회원자치단체 간의 업무연락 조정
- 나.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운영지원 및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 다. NEAR국제포럼, 실무자워크숍, 청년리더스포럼 등 사무국 자체 사업 수행
- 라. 연합발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
- 마. 국제기구, 지역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바. 대외홍보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
- 사.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작성
- 아. 예산편성 및 집행

5.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김 옥 채				
	기획홍보부장(경상북도) 정 필 란			국제협력부장 김 윤 곤	
	기획홍무팀장(경상북도) 최 해 용			국제협력팀장 최 주 화	
	중국전문위원 조 선 화(박려정)			중국주재관(헤이룽장성) 청안니(마수차오)	
	일본전문위원 손 미 경			NEAR사무국 시마네현 지부 비토 케이스케(조희은)	
	몽골전문위원 르함 히식자르갈			몽골주재관(다르항오울아이막) 바트사이항 몽흐체첵 (에르데네빌릭 아쯔짜야)	
	러시아전문위원 아르쭌 예고로프			러시아주재관(사하공화국) 슬레프초바 이리나 (콘스탄티노바 아나스타시아)	
	영어전문위원 석지영(김미연)			행정전문위원 김 유 진	
	홍보전문위원 도 언 석			행정전문위원 김 수 현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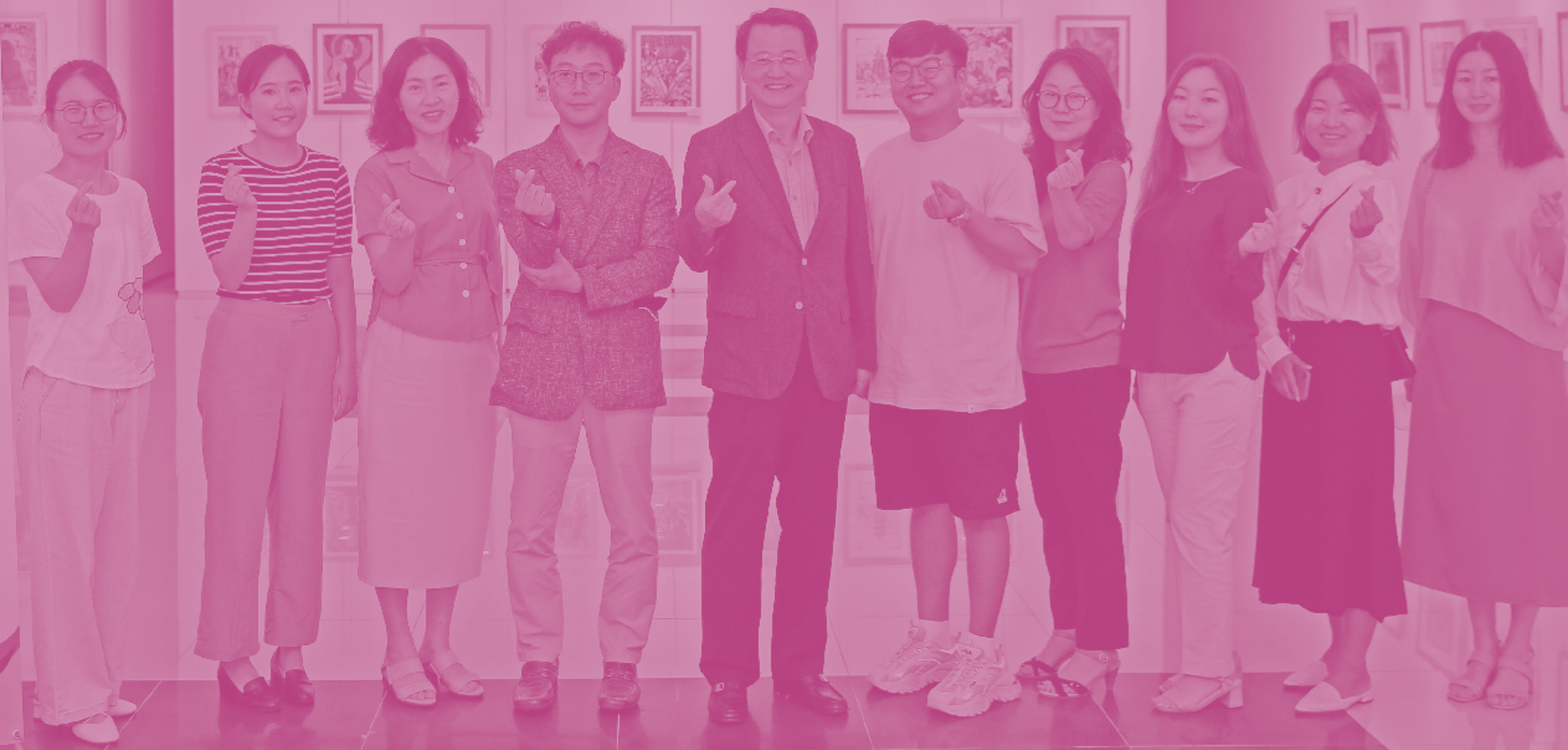
Appendix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전시기간
2020. 7. 20. ~ 7. 31. (2주간)
- 전시주제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환경문제

주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Local Authorities of Northeast Asia Regional Revitalization)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전시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현장

전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현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이 기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 2. 지역 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3.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4.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등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자치단체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제4조의 2(준회원의 범위) “연합”의 준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 이외의 아시아지역에 위치하면서,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현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의 2(준회원의 권리·의무) 준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의무 중 제7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신설 2016. 9. 27.>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9. 27.>

제7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 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0. 10. 28.>
- 2. 감사는 회원자치단체 소속 국가에서 각 국당 1인씩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임기는 제1호와 같다. <개정 2016. 9. 27.>
- 3.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제1호 의장 및 제2호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개정 2016. 9. 27.>
- 2. 회비의 결정
- 3. 연합 현장의 개정
- 4.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5.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 6. 감사의 선출
- 7.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8.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승인 <신설 2016. 9. 27.>

- 9.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10.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회원자치단체는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단,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 2. 제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7.>
- 3. 제8조 제6호 내지 제11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7.>

제9조 2(실무위원회 의사결정 위임)

- 1.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의 경우 제8조 제1호, 제7호, 제8호 기능의 의사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 ①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주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2.> <개정 2018. 10. 29.>
- ② 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 ④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설된 분과위원회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0. 21.> <개정 2018. 10. 29.>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자치단체 간의 의견조정

-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1998. 9.>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존속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 1.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 및 집행
-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자치단체 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정)

- ① 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연합의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며, 회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6. 9. 27.>
 -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목에 의거 부담한다.
 - 가. 경비총액(A)의 반액(B)은 회의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나. 나머지 반(C=A-B)은 회의개최 자치단체를 뺀 연합회원자치단체 수(D)를 균등하게 나눈 액(C/D)을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 다.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 수가 D를 하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회의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 회원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총회 시 차기 총회개최지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는 개최할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경비의 잠정 회계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8. 9.>

제17조(등록)

- ①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8. 9.>
- ②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신설 1998. 9.>

제4장 최종규정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6. 9. 27.>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단체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개정 2010. 10. 28.>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1998. 10. 21.
일부개정 2007. 9. 4.
일부개정 2008. 9. 2.
일부개정 2010. 10. 28.
일부개정 2011. 7. 19.
일부개정 2013. 9. 11.
일부개정 2017. 9. 26.
일부개정 2018. 10. 29.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개정 2017. 9. 26.>

제1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이하 「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9. 26.>

제2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명칭변경 2013. 9. 11.>
- 2. 환경분과위원회
- 3.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통합 2008. 9. 2.>
- 4. 방재분과위원회
- 5. 삭제 <2017. 9. 26.>
- 6. 삭제 <2017. 9. 26.>
- 7.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 2008. 9. 2.>
- 8.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2008. 9. 2.>
- 9. 광물자원개발분과위원회 <신설 2010. 10. 28. 개정 2017. 9. 26.>
- 10.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신설 2010. 10. 28.>
- 11. 삭제 <2017. 9. 26.>
- 12.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신설 2011. 7. 19.>

- 13. 농업분과위원회 <신설 2011. 7. 19.>
- 14. 체육분과위원회 <신설 2013. 9. 11.>
- 15. 물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 26.>
- 16. 국제인재교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 26.>
- 17. 국제전자상거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 26.>
- 18. 혁신플러스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 29.>
- 19.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 29.>
- 20. 전통의약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 29.>

제3조(기능)

- ① 각 분과위원회는 개별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개정 2017. 9. 26.>
- ② 각 분과위원회는 개별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검토 협의한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7. 9. 26.>

제4조(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 ①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이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6.>
- ②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코디네이트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9, 2017. 9. 26.>
-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연락 및 조정은 원칙적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 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 ④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임기 내에 1회 이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또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9, 2017. 9. 26.>
- ⑤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운영 시 많은 회원단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9, 개정 2017. 9. 26.>
- ⑥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9.>
- ⑦ 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분과위원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가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를 희망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코디네이트 자치단체 교체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⑧ 실무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제6조(참가)

- ① 모든 회원단체는 연합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1. 7. 19.>
-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하여,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회원자치단체 지역의 전문가, 기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6.>

제7조(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의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7. 19, 개정 2017. 9. 26.>

제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비운영 규정

(제 정) 2016. 9. 28.
(일부개정) 2017. 9. 26.
(일부개정) 2019. 8. 7.

[시 행 2019. 8.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비 및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원칙)

회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① 사무총장은 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요구 시 회비의 집행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회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회계에 관한 업무관장)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 ① 회원은 연회비로 미화 1,000달러를 납부한다.
- ② 회비납부 기준 통화는 사무국 소재국의 통화로 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연도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신규 회원 회비는 가입이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납부한다.
- ③ 사무총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제1항의 연회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권리 제한)

2 회계연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현장 제7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제1호에 규정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권리가 제한된 회원단체는 회비납부를 개시한 회계연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제7조(회비용도)

회비는 연합의 항구적인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하여 사무국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 구성 및 운영한다.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한 회원단체의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각 국당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대한민국의 경우, 사무국 유치단체인 경상북도 이외에서 선출하며, 감사가 소속하는 회원단체는 제외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국가별로 파견한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내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사무국 실무담당이 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안 등 편성)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비를 재원으로 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으로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 등의 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 구성·운영한다.

- ① 사무총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 ② 전항의 심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행한다.

제11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

- ①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집행한다.
- ② 예산 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무총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필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검사)

- ①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익년도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회계검사 결과를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선출·임기)

감사의 선출과 임기는 현장 제7조(임원) 및 제8조(기능)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연회비 납부시기는 당분간 유예한다). <개정 2017. 9. 26.>, <개정 2019. 8. 7.>

회원지방자치단체

러시아



- ① 부라티아공화국
- ② 사하(야쿠티아)공화국
- ③ 투바공화국
- ④ 알타이변경주
- ⑤ 자바이칼변경주
- ⑥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⑦ 연해변경주
- ⑧ 하바롭스크변경주
- ⑨ 아무르주
- ⑩ 이르쿠츠크주
- ⑪ 캄차카변경주
- ⑫ 마가단주
- ⑬ 사할린주
- ⑭ 톨스크주
- ⑮ 케메로보주
- ⑯ 하카시아공화국

몽골



- ① 울란바토르시
- ② 아르항가이아이막
- ③ 바양울기아이막
- ④ 바양홍고리아이막
- ⑤ 불강아이막
- ⑥ 고비알타이아이막
- ⑦ 고비숨베르아이막
- ⑧ 다르항오울아이막
- ⑨ 도르노드아이막
- ⑩ 도르노고비아이막
- ⑪ 돈드고비아이막
- ⑫ 자브항아이막
- ⑬ 오르홍아이막
- ⑭ 우브르항가이아이막
- ⑮ 움느고비아이막
- ⑯ 수흐바타르아이막
- ⑰ 셀렝그아이막
- ⑱ 투브아이막
- ⑲ 옅스아이막
- ⑳ 홉드아이막
- ㉑ 행타이아이막
- ㉒ 홉스굴아이막

북한



- ① 함경북도
- ② 나선특별시

대한민국



- ① 부산광역시
- ② 대구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광주광역시
- ⑤ 대전광역시
- ⑥ 울산광역시
- ⑦ 세종특별자치시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 ⑫ 전라북도
- ⑬ 전라남도
- ⑭ 경상북도
- ⑮ 경상남도
- ⑯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 ① 아오모리현
- ② 아키타현
- ③ 야마가타현
- ④ 니이카타현
- ⑤ 도야마현
- ⑥ 이시카와현
- ⑦ 후쿠이현
- ⑧ 교토부
- ⑨ 효고현
- ⑩ 돗토리현
- ⑪ 시마네현

중국



- ① 안후이성
- ② 헤이룽장성
- ③ 허난성
- ④ 후베이성
- ⑤ 후난성
- ⑥ 지린성
- ⑦ 네이멍구자치구
- ⑧ 닝샤후이족자치구
- ⑨ 산둥성
- ⑩ 산시성 (山西)
- ⑪ 산시성 (陝西)

준회원

- ① 호찌민

파트너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정부기구(R20)

세계지도자들이 UN과 협력하여 설립한 기구로서 세계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발전 프로젝트 · 정책 · 수범사례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gions20.org



유럽지방정부협의회(AER)

유럽자치단체의 공동번영 및 보완성 추구를 위해 1985년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5개국 23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프랑스 알사스주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www.aer.eu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 세계 86개국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었고,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단위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ww.iclei.org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37668) 대한민국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 CN:+82-54-223-2320 JP:+82-54-223-2317 KR:+82-54-223-2324 MN:+82-54-223-2384 RU:+82-54-223-2319

F. +82-54-223-2309 E-mail near@neargov.org Website www.neargov.org